

## 산재예방요율제, 산재감소에 효과적

산재발생 유해·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 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2013년도 1.43%에서 1.1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A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20% 인하된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어,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매월 1백 6십여만원씩 인하받아 연간 2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 7천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명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을 취

# 산업보건주요뉴스

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모두 2만 7천 133개로, '위험성평가' 인정은 2만 4천 486개 사업장이 신청해 3천 152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주교육' 인정은 2만 7천 968개 사업장이 신청해 2만 3천 981개 사업장이 인정을 받았다.

##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금년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균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일본도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 오다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